

#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of Household & the Related Factors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대학원 김인숙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여정성

Dep.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l. Univ.

In Sook, Kim

Dep.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l. Univ.

*Assistant Professor* : Jung Sung, Yeo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the proportion of household expenditure item and the subjective burden of household due to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761 housewives who have a child of the second grade or fourth grade of primary-school in Seou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se six variables-educational level of mother, household income, place of residence, grade of child, number of child, and the expected educational level of child-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Second, the proportion of food expense, housing expense, clothing expense, and miscellaneous expense significantly differ with respect to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Generally, the proportion of household expenditure item and subjective burden are influenced more by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for school work than by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for talent.

## I.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회 획득,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즉 교육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이익이 돌아오므로, 근본적으로 투자와 같은 것이다(Mort & Reusser, 1951; 김동구, 1978 재인용). 교육은 소비자 자본을 형성하며, 이 자본은 평생의 소비의 질과 선호를 개선하는 특성을 가진다(Schultz, 1961).

1992년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가계지출 비목 중 기본적 지출인 식료품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교양 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교양 오락비는 13만 1천원으로 전년의 10만 9천원에 비해 20.7% 포인트 증가하여, 소비지출 비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비는 1989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도 1985년 7.4%이던 것이 1990년 9.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총량이다. 경제적 비용은 자녀 교육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원비, 재능교육비, 과외비, 학습지 구독비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교육비는, 필수적 성격이기 보다는 선택재(사치재)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 등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자녀 교육비 중 특히 사교육비의 표면적인 액수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다. “만일 교육비를 늘릴 수 있다면 어디에 지출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의 결과에서 보조학습비를 늘리고 싶다는 대답이 33.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보조

학습비 지출 압력이 큰 문제이다(박명희, 19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가계소비 지출에 있어 가장 부담과 압박을 받는 지출 항목은 무엇이고, 사교육비 내에서도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 중 어느 것이 더 가계에 부담과 압박을 주는가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 중 사교육비-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비 지출의 전반적인 현황과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교육비 수준별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 및 주관적 압박도를 살펴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 관련 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가계 복지 증진 및 가계소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교육비의 개념과 실태

#### (1) 사교육비의 개념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은 수업료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학용품 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학교 활동 보조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혹은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때 전자를 공교육비라 하고, 후자를 사교육비라 한다.

즉, 공교육비는 학생이 내는 납입금과 같이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 회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에 한해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거의 조세와 같은 원칙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는 경비를 말한다(공은배·천세영, 1989).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3)에서는 사교육비를 학교 교육을 제외한 과외교육비와 특기·재능을 위한 학원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과 달리 박명희(1976)는 개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은배·천세영의 정의가 가장 설득력 있다.

## (2) 사교육비 지출 실태

### ① 사교육비 지출 추이

사교육비 규모는 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는데, 사교육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대되어 왔다. 1968년 GNP의 4.46%를 차지했던 사교육비의 총량 규모는 1985년에 6.59%로 되었다가, 1990년에는 GNP의 6.79%로 증가하였다(이혜영, 1992).

또한 1994년 한해 동안 교육에 투자된 사교육비는 GNP의 6%인 17조 4천 6백 40억원으로 공교육비 16조 7천 5백 78억원을 능가했으며, 1990년의 9조 4천 2백 70억원보다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외비는 5조 8천 4백 47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34%나 차지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 ② 사교육 참여 정도

사교육 참여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는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 등에 따라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가 다양하다. 조사한 내용에 있어 각 연구자별로 수치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많은 가계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김성기·조동섭(1992)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을 단위로 초중고 학생 5,104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8%가 학원이나 가정 교사의 과외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과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학원 과외를 받고 있다는 응답(27.2%)이 가장 많았고, 가정 교사를 통해 과외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6.8%, 학원과 가정 교사를 통해 과외를 받고 있다는 응답도 2.6%였다.

김동래(1993년)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가 17,013명의 약 70%에 달하는 어린이가

1개 이상의 학원 교습을 받고 있었으며, 2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약 20%에 달했다. 그리고 3-4개의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2.3%에 이르렀다. 학원 교습 내용별로는 전체 어린이의 과반수인 56.4%가 피아노학원과 속셈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또한 국민일보(1994)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68%가 학교 수업 외에 학원 수강 혹은 개인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중 51.5%가 학원 수강, 5.9%가 개인 과외를, 그리고 10.5%는 학원과 개인 과외를 동시에 받는다고 응답했다. 대도시일수록 과외 교육이 보편화된 상태인데, 서울 지역의 경우 85.6%의 학생이 학원 또는 개인 과외를 통해 보충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선일보(1994) 조사에 의하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중 89.1%, 중학생의 81.7%가 학교 수업 외에 과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개교 1,0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1인당 1.9개, 중학교는 2.9개 과목의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강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달에 쓰는 과외비는 강북 지역 학생의 2배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사교육 참여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일수록 더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습교육 외에 재능교육에도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 (1)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다. 사람들의 소비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오랜동안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되어왔으며, 여러 학자들이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연구해 왔다.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가족 크기 및 구성, 교육 수준 연령, 성별 등과 같은 가계 구성 변수를 들고 있다(김정숙, 1992; 정영숙, 1993; 이기춘, 1994).

특히 소득의 변화는 소비 비목내 뿐만 아니라 소비 비목 간에도 대체효과나 보완효과를 가져와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Margrabi & Chung, 1990; 정영숙, 1992 재인용).

한국소비자보호원(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식생활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교통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통계청의 1992년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교육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잡비) 등은 소득탄력성이 높아,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에 대한 각 비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숙(1992)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소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선택적 소비지출에 관한 정은주·이기춘(1996), 이성민(1992)의 연구에서는 외식, 外衣, 교양 오락, 일반 가구, 개인 교통 등의 선택적 비목들의 소비지출이 가계 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배순영·이기춘(1991), 손상희·이기춘(1983) 등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가계의 임대료 지출 및 임대료 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밝혀졌다.

가계를 소비지출의 주체로 볼 때 선호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 소비지출의 필요도이다(Allen & Bowley, 1935; 양세정, 1991 재인용). 어느 비목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하는 것은 가계소비지출 양식의 기본적인 골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강이주(1988)는 소비자 구매가 생리적 욕구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특성에 의해서 조성되는 2차적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시사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체적 소득의 증가는 가계 소비 함수에 있어서 선택적 비목의 소득탄력성을 점점 낮춰 그 긴요도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미·김영숙, 1992).

#### (2)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에

있어서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자녀의 연령, 가구의 직업, 거주지 등이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비, 자녀 수 등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낮아지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 수, 가족의 의식과 태도, 부모의 학력, 가구의 직업, 성별, 소득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학년별, 학교 설립별(공립·사립), 거주지, 과외 수강 경험, 학원·과외 수강 동기(태도), 첫 자녀의 연령, 가구주 연령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박명희, 1976; 공은배·천세영, 1990; YWCA, 1991; 김성기·조동섭, 1992; 한국교육개발원, 1992; 정은주·이기춘, 1996).

### 3. 사교육비 지출과 가계 부담

#### (1) 비목별 지출 비중과 주관적 압박도

일반 소비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가계 부담을 가계 소득 혹은 총소비 지출과 대비시켜 본 객관적 측면과, 가계 경제 문제의 지각과 심리적 압박과 관련지어 본 주관적 측면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서로 혼용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황덕순(1993)은 경제적 압박감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배순영·이기춘(1991), 이성림·이기춘(1991), 임정·이기춘(1988)의 척도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재정 상태 때문에 받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계 비목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1993)은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에서 비목별 가계지출액이란 객관적 자료와 비목별 지출 부담 정도와 부담 요인에 대한 지각 등의 주관적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연화(1992)는 비목별로 가계지출 부담이 큰 순위를 제시하였으며, 이성민(1992)은 각 비목별 지출 구성비를 총소비 지출액에 대한 각 비목별 지출액의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었다.

한편, 윤정혜·이기춘(1994)은 객관적 박탈과 주관적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객관적

박탈은 타인과 비교해서 본 상대적인 박탈 상태를 의미하였고, 주관적 박탈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각되는 박탈을 뜻하였다.

배순영·이기춘(1991)은 임대료 부담과 가계 경제 문제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임대료 부담을 월평균 가계 소득에서 임대료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가계 경제 문제 지각은 구체적인 소비지출의 여러 측면에서 주거 부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지각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손상희·이기춘(1983), 김동구(1978) 등은 주거비, 교육비, 기타 비목들의 가계 소득 및 가계의 총소비 지출액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계지출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과 주관적 압박도는 주로 가계 소득 및 가계총지출액에 대한 비중과 가계 경제 문제 지각 및 부담도 지각에 의해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

한국소비자보호원(1993)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비(32.1%)가 가계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하는 지출 비목으로 나타났다(식생활비 31.8%, 주거비 8.5% 순). 이는 가계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 교육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축의 목적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23.2%였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에 대한 지출은 계속 증대되리라 여겨진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사교육비에 한해서 지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 연령, 소득, 도시 크기에 관계없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가구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외·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75%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과외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출혈을 감수하는 것으로 가정에

서 부담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과외나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계 중에는, 그 비용 조달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계가 9%가 되며, 이런 부업 주부 가운데는 과출부(7%)도 있다(서울 YWCA, 1991).

##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조사대상자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과 그것의 가계소비지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사교육비 지출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 문제 3. 사교육비 지출은 다른 가계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인가?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사교육비

사교육비란 순수하게 학부모의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서, 소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의사 결정을 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 지출하는 경제적 비용이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인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에 속하는 주된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학습교육비: 속셈 학원비, 학습지 구독비, 과외비 등

재능교육비: 주산·타자 학원비, 컴퓨터 학원비, 웅변·미술·음악 학원비, 서예 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무용 학원비 등<sup>1)</sup>

1) 주산 타자 학원비와 컴퓨터 학원비가 현재는 기능적이고 특수한 면이 많아서 재능교육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 이 항목들은 더욱 보편화되고 학습과 밀접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나중에 학습교육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특

## (2) 비목별 지출 비중

비목별 지출 비중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객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비목별 지출 비중이란 가계지출 비목이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3) 주관적 압박도

주관적 압박도는 사교육비 관련 지출 부담때문에 가계소비 중에서 제대로 지출하고 있지 못한 정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 3. 자료 수집과 방법

## (1)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질문지법으로 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묻는 문항,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묻는 문항, 사교육비 수준별 지출 비중 정도와

주관적 압박 정도를 묻는 문항,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추가 소득 확보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① 사교육비 관련 변수

사교육비와 그의 하위 영역인 학습교육비, 재능교육비 변수는 각 가계에서 한 자녀가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을 천원 단위까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를 학원비, 과외비, 개인지도비, 학습지비,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입할 수 있게 하였다.

## ② 비목별 지출 비중

비목별 지출 비중은 가계가 지출하는 월평균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가 가계의 월평균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비목별 지출은 월평균 지출 액수를 천원 단위까지 직접 적도록 하였다. 현행 도시가계연보에서는 9대 비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계 소비지출 비목 중 식비, 주거비, 피복비에 대한 지출

〈표 1〉 조사 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N=761)					
변 수	구 분	백분율(빈도)	변 수	구 분	백분율(빈도)
거 주 지	강 북	59.1 (450)	자녀의 학년	1·2·3학년	37.6 (286)
	강 남	40.9 (311)		4·5·6학년	62.4 (475)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27.8 (211)	총자녀수	1명	24.7 (188)
	150-200만원	30.6 (233)		2명	65.3 (497)
	200만원 이상	41.6 (317)		3명 이상	10.0 ( 76)
아 버 지 직 업	전문직	12.7 ( 97)	어 머 니 직 업	비취업	59.6 (455)
	공무원·군인	9.6 ( 73)		전문직	5.5 ( 42)
	기업체 사원	24.8 (189)		공무원·군인	0.8 ( 6)
	자영업	34.7 (264)		기업체 사원	3.4 ( 26)
	판매·서비스	7.6 ( 58)		자영업	13.1 (100)
	생산직	7.2 ( 55)		판매·서비스	7.2 ( 55)
	무응답	3.3 ( 25)		생산직	4.9 ( 37)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52.0 (396)	어머니의 교육수준	무응답	5.3 ( 40)
	대학 이상	46.3 (352)		고졸 이하	72.0 (548)
	무응답	1.7 ( 13)		대학 이상	26.0 (198)
				무응답	2.0 ( 15)

히 컴퓨터 교육은 현행 학교 교육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광열비 및 수도비, 보건위생비, 교통비, 잡비 등에 대한 지출은 모두 잡비로 합하여 조사하였다.

③ 주관적 압박도

배순영·이기춘(1991), 이성림·이기춘(1991), 임정·이기춘(1988), 김민정·이기춘(1984)의 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계의 주관적 압박도는 식비(4문항), 주거비(4문항), 피복비(2문항), 잡비(9문항) 등의 1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압박을 받거나 제대로 지출하지 못한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4점(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리커트형으로 측정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주부로, 가정 환경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강남 4개 학교, 강북 4개 학교로 배분하여 표집하였다. 총 76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사교육비 지출 수준

(1) 사교육비 지출의 전반적 현황

사교육비 지출의 전반적 현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112,470원이다. 사교육비 하위 영역별로 보면, 월평균 지출액이 학습교육비가 67,270원이고, 재능교육비는 45,200원이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중에서도 학습교육비 보다는 재능교육비가 더 적게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학부모들이 재능교육보다는 학업 성적과 더욱 밀접한 학습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뜻한다.

(2) 사교육비 지출 비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사교육비는 가계 소득의 평균 6.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5% 미만 집단과 5-10% 미만 집단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대비 학습교육비의 평균 비중은 3.80%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학습교육비의 비중의 분포는 3% 미만 집단(49.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능교육비는 소득 대비 평균 비중이 2.40%이다. 소득 대비 재능교육비 지출 비중의 분포는 거의 대

<표 2> 사교육비 지출 현황

변 수	지출액 구분	백분율(빈도)	평 균(표준편차)
사교육비	10만원 미만	48.0 (365)	112,470 원 (83,940)
	10-20만원	41.1 (313)	
	20만원 이상	10.9 ( 83)	
학습교육비	5만원 미만	37.2 (283)	67,270 원 (64,270)
	5-10만원	39.7 (302)	
	10만원 이상	23.1 (176)	
재능교육비	5만원 미만	52.7 (401)	45,200 원 (60,280)
	5-10만원	31.5 (240)	
	10만원 이상	15.8 (120)	

다수가 3%미만 집단(63.3%)에 속하고 있다. 소득 대비 비중에서 학습교육비의 비중이 재능교육비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거주지, 자녀의 학년, 아버지 교육 수준, 어머니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 소득, 아버지 직업, 기대교육수준, 성적결정요인 등

〈표 3〉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 수	소득대비 비중		지출대비 비중	
	분 포	백분율(빈도)	분 포	백분율(빈도)
사교육비	5% 미만	44.6 (318)	10% 미만	44.4 (336)
	5-10% 미만	40.0 (285)	10-20% 미만	40.1 (303)
	10% 이상	15.4 (110)	20% 이상	15.5 (117)
학습교육비	3% 미만	49.1 (350)	5% 미만	39.3 (297)
	3-6% 미만	31.7 (226)	5-10% 미만	31.0 (234)
	6% 이상	19.2 (137)	10% 이상	29.8 (225)
재능교육비	3% 미만	63.3 (451)	5% 미만	60.4 (457)
	3-6% 미만	25.8 (184)	5-10% 미만	24.9 (188)
	6% 이상	10.9 (78)	10% 이상	14.7 (111)

총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평균 15.88%로 나타났다.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의 분포는 10% 미만 집단과 10-20% 미만 집단에 각각 44.4%와 40.1%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교육비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10.20%이고, 재능교육비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5.68%이다. 지출 대비 학습교육비 비중의 분포는 5% 미만 집단과 5-10% 미만 집단, 그리고 10% 이상 집단 사이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출 대비 재능교육비 비중의 분포는 거의 다수 가계가 5% 미만 집단(60.4%)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출 대비 사교육비에서 학습교육비 비중은 소득 대비 비중과 마찬가지로 재능교육비 비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2.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 (1)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회귀분석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사교육비 지출이며, 독립 변수로는 일원분산분석에서 사교육비

을 포함시켰다.

위의 8개 독립 변수들을 사용하여 1차 회귀분석한 결과, 아버지 교육 수준, 아버지 직업, 성적결정요인의  $\beta$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세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최종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9$ ).

이 외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 소득, 거주지, 자녀의 학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beta=0.17$ ), 강북 보다는 강남에 거주할수록( $\beta=0.17$ ), 학년이 높을수록( $\beta=0.11$ ),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1$ ). 이상의 어머니 교육 수준, 가계 소득, 거주지, 자녀의 학년, 기대교육수준의 다섯가지 변수들은 사교육비 지출의 22.1%를 설명해 주고 있다( $R^2 = 0.22$ ).



〈표 4〉 사회경제적 변수 및 태도 변수에 따른 사교육비의 중회귀분석

변 수	사교육비	학습교육비	재능교육비
어머니의 교육수준	8.85 (0.19) ***		6.75 (0.26) ***
가계소득	0.13 (0.17) ***	0.08 (0.14) ***	0.06 (0.11) **
거 주 지	29.61 (0.17) ***	13.21 (0.10) **	18.75 (0.15) ***
자녀의 학년	7.10 (0.11) ***	9.51 (0.19) ***	
자 녀 수			-10.42 (-0.09) **
기대교육수준	5.89 (0.11) **		3.16 (0.08) *
상 수	-139.33	10.92	-94.94
R <sup>2</sup>	0.22	0.07	0.20

\* : p<.05 \*\* : p<.01 \*\*\* : p<.001 # ( )은 Beta값임.

### (2) 학습교육비의 중회귀분석

학습교육비에 대한 회귀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학습교육비이고, 독립 변수는 최종적으로 거주지, 자녀의 학년, 가계 소득의 세 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학습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학년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학습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beta=0.19$ ).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목의 비중이 커지고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업 성적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능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 학습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 소득( $\beta=0.14$ ), 거주지( $\beta=0.10$ )의 순이었다.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강남에 거주할수록 학습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녀의 학년, 가계 소득, 거주지의 세 변수는 학습교육비의 7.8%를 설명해 준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이 다소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습교육비가 이런 가정 내·외적인 배경 변수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초등학생의 학습교육(속셈학원 등의 학원과 과외)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변수들의 설명력이 낮은 것 같다.

### (3) 재능교육비의 중회귀분석

재능교육비의 회귀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재능교육비이고, 독립 변수는 거주지, 가계 소득, 어머니 교육 수준, 자녀수, 기대교육수준의 5개 변수를 가지고 최종적인 회귀분석을 하였다.

재능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 교육 수준이다. 어머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재능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beta=0.26$ ). 두번째로 재능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거주지이다. 강북 보다는 강남에 거주할수록 재능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5$ ).

이 외에 재능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계 소득( $\beta=0.11$ ), 자녀수( $\beta=-0.09$ ), 기대교육수준( $\beta=0.08$ )이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재능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각 자녀에게 더 많은 재능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습교육비에서는 자녀수가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수가 많아진다 해서 각 자녀에게 돌아가는 학습교육비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능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 수준, 거주지, 가계 소득, 자녀수, 기대교육수준의 다섯 변수는 재능교육비의 20.7%를 설명해 주고 있다.

#### (4) 비교 및 요약

사교육비와 학습교육비 및 재능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 교육 수준, 가계 소득, 거주지, 자녀의 학년, 자녀수, 기대교육수준의 6개이다. 그리고 이들 중 가계 소득과 거주지 변수는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은 학습교육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자녀수와 기대교육수준은 재능교육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것은 정은주·이기춘(1996), 한국소비자보호원(1993), 정영숙(1992), 김성기·조동섭(1992), YWCA(1991), 공은배·천세영(1990), 박명희(1976)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의 하위 영역인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도 이들 사회경제적 변수 및 교육 태도 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학습교육비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태도 변수에 따른 차이가 재능교육비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에 비해 사회경제적 변수 및 교육 태도 변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강제적이고 필수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 항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사교육비 수준별 지출 비중과 주관적 압박도

학습교육비 수준과 재능교육비 수준별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과 주관적 압박도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출 비중은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가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주관적 압박도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압박을 받거나 제대로 지출하지 못한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 (1) 비목별 지출 비중

사교육비 수준별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 비중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교육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

다. 또한 학습교육비 수준별로 식비, 주거비, 잡비, 비중은  $p < .001$  수준에서, 피복비 비중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재능교육비 수준별에서는 식비, 피복비, 잡비 비중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거비 비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사교육비 및 그의 하위 영역인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교육비 관련 지출로 인해 개별 가계가 다른 비목의 지출 비중을 낮추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기타 비목의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주관적 압박도

사교육비 수준별 주관적 압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 수준별 주관적 압박도는 각 비목별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교육비 수준별에서 주거비와 잡비 압박도는  $p < .001$  수준에서, 식비와 피복비 압박도는  $p < .0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재능교육비 수준별에서는 주거비 압박도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잡비 압박도와 피복비 압박도는 각각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계는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각 비목별로 주관적인 압박감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개별 가계는 학습교육비로 인한 주관적 압박도를 재능교육비로 인한 주관적 압박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다. 이것은 학습교육비 지출의 성격이 거의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교육비 및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 수준별 지출 비중과 주관적 압박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비는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 및 주관적 압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가계 비목에 따라, 또 사교육비 영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

〈표 5〉 사교육비 수준별 지출 비중과 주관적 압박도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구분	지출비중				주관적압박도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
사교육비	하 (336)	35.39 a	16.75 a	8.62 a	33.11 a	8.28	9.91	5.31	19.92
	중 (303)	33.63 a	15.52 a	8.65 b	28.24 b	8.17	9.78	5.37	19.85
	상 (117)	19.28 b	10.09 b	5.17 b	16.48 c	8.44	10.05	5.41	20.89
	F값 (756)	58.65***	20.25***	18.98***	55.67***	0.47	0.35	0.16	1.43
학습교육비	하 (297)	33.85 a	16.63 a	8.46 a	31.82 a	7.94 a	9.34 a	5.11 a	18.99 a
	중 (234)	34.64 a	15.81 a	8.61 a	29.89 a	8.20 ab	9.97 ab	5.37 ab	20.07 ab
	상 (225)	27.48 b	12.8 b	7.08 b	22.95 b	8.74 b	10.50 b	5.65 b	21.40 b
	F값 (756)	16.16***	10.21***	5.12**	22.75***	6.12**	9.52***	6.28***	10.86***
재능교육비	하 (457)	32.95 a	15.11	8.27 a	29.97 a	8.42	10.25 a	5.48	20.63 a
	중 (188)	33.60 a	16.13	8.80 a	29.52 a	8.10	9.37 b	5.14	19.05 b
	상 (111)	26.46 b	14.23	6.20 b	21.30 b	7.88	9.23 b	5.19	19.29 ab
	F값 (756)	9.39***	1.32	7.76***	14.36***	2.28	8.65***	3.17*	5.84**

\* p <.05 \*\* p <.01 \*\*\* p <.001

보다 가계지출의 비목별 지출 비중 및 주관적 압박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능교육비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계 비목에서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가계에 주관적 압박을 줄 때, 그 지출을 줄이거나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습교육비의 경우는 그것이 가계 비목에서 높은 지출 비중을 갖고 주관적 압박을 주더라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보다 필수적이고 강제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교육비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비, 잡비, 주거비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적인 비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조차 학습교육에 치중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는 적어도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교육 보다는 재능교육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난 것

이다.

둘째, 어머니 교육 수준, 가계 소득, 거주지, 자녀의 학년, 자녀수, 기대교육수준 변수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거주지는 사교육비와 학습교육비 및 재능교육비 모두에 영향을 주었고, 자녀수는 재능교육비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어머니 교육 수준은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임에도 자신이 직접 자녀를 지도하기 보다는 개인지도 담당자나 사교육 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 교육 수준, 거주지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질 및 가격의 차이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교육 행정 담당자는 교육 정책 수립시에 사교육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보다 상대적으로 가계에 더욱 부담과 압박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습교육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압박도는 높지만, 재능교육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압박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학습

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가계의 부담과 압박을 감수하지만, 재능교육을 위해서는 굳이 압박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재능교육은 가계에 여유가 있으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학습교육에 비해 상당히 선택적인 성격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다수 가계가 사교육비를 객관적으로 많이 부담하면서도, 그에 비해 주관적으로는 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압박이라 여기지 않고 의무 내지는 투자로 승화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교육비 부담과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자녀 가계는 학습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이것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가계 비목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학교 수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업에서 양질의 수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설 학원의 개선 및 정부 보조,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재능교육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재능교육비는 어머니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 외에 거주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학교에서 재능교육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사교육의 양적 팽창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담당해야 할 많은 부분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재능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 학교와 재능 학원 간의 협력 교육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도 재능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한정지어 연구를 하였으므로,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 사교육비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을 가지고 양적으로만 분석하였으므로, 사교육 내용에 있어 질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이주(1988).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대한가정관리학회지* 26(4), 113-127.
- 2) 공은배·천세영(1989). 한국 교육 투자 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3) \_\_\_\_\_(1990).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 4) 국민일보 1994년 3월 14일자 기사.
- 5) 김동구(1978). 가계 수입과 교육비 부담에 관한 연구. *사학* 8, 117-131.
- 6) 김동래(1993). 서울시 국민학교 아동의 학원 교습 현황. *서울교육* 1993년 가을호.
- 7) 김민정·이기춘(1984). 가계 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9, 1-22.
- 8) 김성기·조동섭(1992). 교육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한국교육정책자문회의*.
- 9) 김연화(1992). 도시 중산층 주부의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20-29.
- 10) 김정숙(1992).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36.
- 11) 박선미·김영숙(1992). 한국경제개발계획 연도별 가계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18.
- 12)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관리학회지* 14(1), 549-563.
- 13) 배순영·이기춘(1991). 서울시 임차가계의 임대료부담과 가계경제문제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41-257.

- 14) 서울 YWCA/대우가족(1991). 교육 정상화와 과외 실태 조사 보고서.
- 15) 손상희·이기춘(1983). 대도시 입차 가계의 주거 문제에 관한 연구: 임대료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8, 1-20.
- 16)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17) 윤정혜·이기춘(1994). 도시빈곤 가계의 상대적 박탈: 소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27-43.
- 18) 이기춘(1994). 가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 19) 이성림·이기춘(1991). 노인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77-188.
- 20) 이성민(1992). 도시 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 행태에 관한 연구: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9, 53-60.
- 21) 이혜영(1992). 한국교육의 종합 이해와 미래 구상(III): 교육행정과 재정편. 한국교육개발원.
- 22) 임정·이기춘(1988). 주부의 가계 복지 인지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67-82.
- 23)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 대구·경북 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1-14.
- 24) 정은주·이기춘(1996). 기혼여성 취업이 선택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21, 1-12.
- 25) 조선일보. 1994년 4월 7일자 기사.
- 26) 통계청(1993). 1992년도 도시가계연보.
- 27) 한국교육개발원(1992). 한국교육의 종합 이해와 미래 구상(III): 학부모와 자녀 교육편.
- 28)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한국의 소비 생활 지표.
- 29) \_\_\_\_\_(1993). 국민 소비 행태 및 의식 구조 조사.
- 30) \_\_\_\_\_(1994). 한국의 소비 생활 지표.
- 31) \_\_\_\_\_(1995). 소비자시대 '95년 5월호.
- 32)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33) Magrabi, F.M., Chung, Y.S. Cha, S.S, & Yang, S.J.(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21-28.
- 34) Schultz, T.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